

정부 “신규 원전 2기, 기존 계획대로 건설”

기후부 김성환 장관 언론설명회
“기존 원전의 경우도 유연운전 가능”

정부가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안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틀은 일정 수준 유지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연내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11차 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 관련해 정책토론회 및 여론조사 등을 잇따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도 6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특히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함께 발전하기 어려운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다”면서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녹색명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신규로 추진하는 원전은 물론, 기존 원전의 경우에도 안전 운전의 범위 내에서 유연 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후부

했다.

기후부는 에너지저장장치·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을 비롯해,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수립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또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해, 향후 다양한 형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 측 발표에 환경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시민행동은 성명에서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현실성 및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돼 온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금, 온스당 5000달러 돌파

26일 서울 시내 금은방에 골드바와 실버바가 진열되어 있다.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다. 금값은 연초 이후 15% 올랐고, 1년 동안 누적 79% 급등했다. 안전자산인 금값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달러 자산 회피 등의 여파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쟁 환경 녹록지 않아… “민관 힘 모아야”

>> 1면 ‘60조 加 잠수함…’서 계속

CPSP는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국책 사업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잠수함 건조 비용과 도입 이후 30년간의 MRO 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원팀’ 컨소시엄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경쟁 중이며 최종 사업자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민관이 총력 대응에 나섰음에도 경쟁 환경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

다. 캐나다가 비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독일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이 캐나다와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라는 점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그룹 수장이 직접 현지를 찾는 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며 “대통령 비서실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가 유기적으로 힘을 모을 경우 캐나다 측과의 협의 진전과 수주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희 기자 wkh@

삼성·SK, 낸드 가격인상 예고 합산영업익 250조 ‘장밋빛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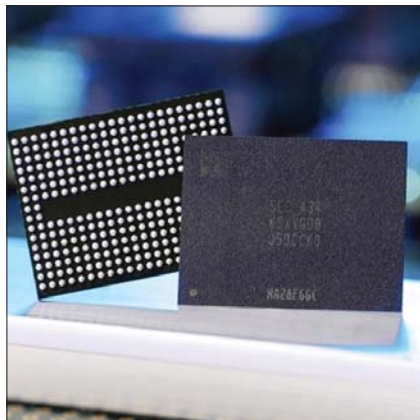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흐름 가팔라
AI 메모리 수요·생산량 감축 겹쳐
삼성·SK, 글로벌 점유율 60% 이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가격 인상을 예고해 메모리 업황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이어 낸드까지 실적 견인 축으로 부상하면서 올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2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을 전 분기 대비 100% 이상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주요 고객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상된 가격은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D램 가격을 최대 70% 가까이 올려 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SK하이닉스도 유사한 수준으로 낸드 가격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 증권가에서는 샌디스크 또한 올해 1분기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에 적용되는 낸드 가격을 100% 인상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 통해 올해 1분기 낸드플래시 공급업체들이 제품 계약 가격을 33~3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업계에서 전해지는 실제 공급 가격 인상 폭은



삼성전자의 QLC V9 낸드플래시. /삼성전자

이보다 더 큰 수준으로 낸드 시장의 가격 상승 흐름이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AI 수요 급증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 제품 생산량 감축이 꼽힌다. 이에 스마트폰과 PC 등 소비자용 기기 가격에도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 합산 점유율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CES 2026’에서 SSD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추론 컨텍스트 메모리 스토리지(ICMS)’라는 개념을 공개하면서 낸드 가격 상승세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ICMS는 방대한 데이터를 GPU 메모리에서 빼내 고용량 낸드플래시 SSD로 옮겨 저장하는 방식

이다. 특히 해당 기술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칩 ‘베라 루빈’에 적용될 경우 막대한 용량의 SSD 탑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ICMS를 이끄는 데이터처리 장치(DPU)의 수요 확대가 전망되면서 삼성전자의 초고용량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라인업과 SK하이닉스의 ‘AI 낸드 퍼포먼스(AI-NP)’가 단순 저장장치를 넘어 DPU와 결합된 최첨단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황 CEO는 ICMS를 시작으로 AI 연산을 담당하는 GPU가 CPU 등 제어 장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낸드플래시에 접근해 각종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의 ‘SCADA(GPU-SSD 직접 연결)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선두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련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ICMS와 SCADA 솔루션이 구현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며 “GPU 랙 한 대당 필요한 SSD 용량이 기존 대비 크게 늘어나면서 비트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소요되는 낸드 사용량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OCI홀딩스, ‘반도체·태양광’ 양날개 편다

日 등 글로벌 시설확장 가시화
실적 저점통과 국면 진입 해석도

OCI홀딩스가 반도체·태양광 양대 축에서 시설확장이 가시화되면서 사업실적도 저점 통과 국면에 진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말레이시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합작법인 출자 완료와 국내 공정용 인산 증설, 베트남 태양광 웨이퍼 상업 가동을 앞둔 흐름이 맞물리며 반도체 소재 확대와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이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OCI홀딩스는 최근 일본 도쿠아미와 설립한 합작법인 ‘OTSM’에 대한 최종 출자를 완료했다. 자회사 OCI테라서스는 총 1573억원(약 1억 875만달러)을 투자해 지분 50%를 확보했다. OTSM은 말레이시아 사리악주에 반도체용 고순도 폴리실리콘반제품 생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OCI는 현재 군산 공장에서 연간 4700톤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 중이며, 말레이시아 합작법인 가동되면 오는 2029년부터 약 8000톤의 추가 생산능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반도체용 인산 증설도 병행된다. OCI는 올해 상반기까지 인산 5000톤 증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평택 P4 공장은 현재 양산 준비 단계이며, 기존 메모리·파운드리 라인의 가동을 회복과 고객사 재고 정상화 단계여서 반도체용 소재 수요가



OCI홀딩스 베트남 웨이퍼 공장 조감도.

/OCI홀딩스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에 따라 OCI 베이직케미칼 부문이 지난해 4분기부터 판매량과 수익성이 회복 흐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OCI테라서스가 베트남 태양광 웨이퍼 공장에서 1분기 내 상업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베트남 공장은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을 원료로 웨이퍼를 생산하는 구조로, 폴리실리콘-웨이퍼 수직계열화를 구축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PFE(금지와외국기관)배제 규정은 올해 과세연도부터 본격 적용 단계에 들어선다. 업계는 규제 강화 시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웨이퍼 수요가 확대되며 OCI홀딩스의 동남아 생산거점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호재가 겹치고 있음에도 단기 실적은 공장 재가동 비용 부담에 발목이 잡

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말레이시아 테라서스 폴리실리콘 공장은 지난해 일시가동 중단 이후 재가동에 들어갔다. 램프업 과정에서 비용이 예상보다 커 지난해 4분기까지 실적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올해 실적은 반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OCI홀딩스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24년 1015억원에서 지난해 -568억원으로 적자 전환한 뒤 올해 3353억원, 2027년 4695억원으로 흑자 회복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순도 11N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태양광용은 최대 10N 수준에 그쳐, 반도체용이 고부가·고진입장벽 소재로 평가된다”며 “태양광 공정을 경험한 기업이라도 반도체용으로 넘어오는 데는 기술적 허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metroseoul.co.kr